

자본주의가 만든 '돈이 되는 인문학'

反기업 인문학

박민영 지음



인문학의 열풍이 요즘처럼 뜨거웠던 적은 없다. 2000년 이후 불기 시작한 인문학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을 만큼 인기가 높다.

본래 인문학은 반성적 학문이다. 인문학적으로 사고는 반성, 회의, 비판이 핵심이어서 세상에 존재하는 지식과 제도를 탐구 대상으로 삼아 질문하고 비판한다. 자유로운 성찰과 탐구는 인문학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근간이다.

문학은 인간의 감정과 행위를 다루는 학문이며 역사학은 과거의 시간을 되돌아보는 분야다. 사회학은 인간과 사회의 관계와 행위를 분석하고 들여다본다. 또한 철학은 존재 근원에 대한 탐색을 하는 분야다. 이러한 인문학은 인간의 지식과 학문의 발달뿐 아니라 사회와 역사의 진보에서 꼭 필요하다.

그러나 인문학이 유행하고 인문학적 사유의 중요성이 강조되지만, 사회는 점차 보수화되고 있다. 2016년 촛불 혁명 이후 잠시 해소된 듯 보이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보수화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상한 점은 사회에서는 인문학이 유행하지만 정작 대학에서는 인문학이 죽어가고 있다. 대학이 '기업의 사내 훈련원'



'反기업 인문학'은 인문학 열풍의 실체를 기업 인문학으로 보고 이를 비판적으로 조명한다.

으로 전락했다는 말은 기업 마인드가 점령해 들어왔다는 의미다.

인문학이 자본의 포로가 됐다라는 방증이다. 현재 인문학 열풍의 실체를 기업 인문학으로 보고 이를 비판적으로 조명한 책이 발간됐다. '인문학, 세상을 읽다', '공자 속의 붓다, 붓다 속의 공자'의 작가 박민영이 펴낸 '反기업 인문학'은 기업을 위한 인문학, 자본을 위한 인문학의 실체를 들여다본다.

저자가 지적하는 기업 인문학은 기업의 이익과 자기계발에 복무하는 인문학이다. 경제적 이익에 복무하는, 다시 말해 성공과 출세를 지향한다. 대표적으로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인문학'을 꼽는다.

2011년 3월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2 제품 발표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문학과 기술의 교차로입니다. 애플은 언제나 이 둘이 만나는 지점에 존재해 왔지요. 우

리가 아이폰을 만든 것은 애플이 항상 기술과 인문학의 갈림길에서 고민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기술을 따라잡으려 애썼지만 사실은 반대로 기술이 사람을 찾아와야 합니다."

애플의 성공이 인문학과 기술의 결합에 있었다는 의미다. 이렇게 '아이폰 인문학'이 탄생했고 '아이폰 인문학'은 기업 인문학의 전범이 됐다.

그러나 저자는 스티브 잡스로 대변되는 '융합형 인재'는 박학다식한 사람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고 본다. 지식을 매개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윤을 높이는 인재를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자본 중심에 기여하는 인간'이라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시대 자본은 점점 더 인문학의 유용성을 묻고 있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기여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인문학은 본질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없다', '안 한다'를 답하는 게 아니다. 답을 내놓은 순간 기업 인문학 프레임에 걸려든다. 그보다 '그렇게 묻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되물어야 한다. 엄매이지 않는 성찰과 탐구, 비판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문학이 우민화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을까? 저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단언한다.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해 잘 모르게 하는 것과 대중을 진기업적 사고로 무장시키는 것이 기업 인문학이라는 것이다.

인문학이 특정 프레임 '인문학도 이윤 창출에 복무해야 한다' 같은 자본의 명령에 포박되면 그 폐해는 인문학자나 인문학도에 그치지 않는다. 인류의 지적 발전을 정제 또는 퇴보시킬 것이다.

<인물과사상사·1만7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간다, 바라=법정 스님이 생애의 마지막 시기들을 보낸 강원도 산골 시절, 그때까지 지내고 있었던 노트와 메모, 편지, 그림들이 다시 빛을 보게 됐다. '수류산방(水流山房)'이라 이름 붙인 마지막 거처에서도 세상을 향해 남긴 글과 그림들.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가르침을 주었던 스님 작품들의 토대가 된 육필 메모와 노트들이 여덟 가지 주제로 엮였다.

<김영사·1만4500원>

▲애인이 있는 시간=이 책은 이 시대의 세계 예술가와 한국작가의 작품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넓고 깊은 책이다. 저자 신현림은 오래전에 대중들에게 현대 사진과 미술 이미지가 어떻게 하면 친근하고 쉽게 가 닿을까 고민하며 에세이를 펴냈었다. 저자는 50개국 여행을 다니는 동안 특히 유럽 최고의 아트페어와 미술관을 돌 때 만난 세계미술과 사진 등을 책에 수록했다.

<사과꽃·1만7000원>

▲나는 그냥 버스기사입니다=목록하게 다가와 마음을 먹먹하게 만드는 현직 버스기사의 에세이. 버스 안에서 바라본 세상과 사람, 자기 성찰에 대한 이야기다. 책에는 노동과 경험에서 나오는 힘 있는 언어, 타인과 자신을 깊이 들여다본 성찰의 언어, 때론 모멸과 극한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 찾아오는 해학과 유머의 언어로 가득하다. 책을 통해 버스기사의 내밀한 사정을 이해하는 과정은 타인의 삶을 따



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수오서재·1만4000원>

▲구미호 식당=이 책은 이미 많은 작품에서 이야기꾼의 마력을 인정받은 박현숙 작가의 청소년소설이다. 순박한 감수성과 빼어난 상상력의 베스트셀러 동화작가 박현숙작가 이야기 초입부터 독자를 몰입시킨다. 소설은 작가의 학창 시절 기억 속에 있었던 그 아이가 모티브가 됐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줄 알았던 그 아이를 칼 858 폭파 사건으로 잃고, 그 아이와 친하게 지낼 기회를 그저 흘려보내고 말았던 것에 대한 후회,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지만 지나간 시간으로 돌아갈 수도 돌아갈 수도 없는 현실을 고백했다.

<특별한서재·1만25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여자 남자, 할 일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이 책은 남녀 성역할에 대한 편견을 다룬 그림책이다. 물고기들이 상황과 필요에 따라 성역할을 바꾸어가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렸다. 물고기들 눈에는 '여자니까, 혹은 남자니까' 하며 자신의 성역할을 고정시켜 불평등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 세상이 이상하기만 하다. 이 그림책에는 여러 물고기들이 등장해 남녀 성역할에 대해 우리에게겐 생소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고래이야기·1만2000원>

▲아이스크림 걸음!=아름다운 순우리말로 이루어진 12가지 걸음 놀이를 몸짓으로 따라 해요! 이 책에서는 우리의 다양한 걸음걸이를 통해 예부터 이름 지어져 내려오는 12가지 걸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12가지 걸음은 종중걸음, 달팽이걸음, 계절걸음, 갯강이걸음, 황새걸음 등 모두 아름다운 순우리말이며, 그림책을 통해 재미난 몸짓으로 걸음걸이를 따라 해 볼 수 있다.

<소원나무·1만3000원>

▲그린피스의 집=이 책은 쓰레기 매립의 실태를 보여 주는데 그치지 않고, 버려진 물건들의 가치를 재조명한다. 그린피스는



는 쓰레기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고, 애정 어린 눈빛으로 물건들의 새로운 쓰임을 궁리한다. 이 기막힌 발상은 실적으로 이어져 피아노는 소파가, 신문과 전단지

책이, 타이어는 욕조가 되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진다. 일상에서 만나는 물건들의 쓰임과 의미를 되돌아보게 한다.

<시공주니어·1만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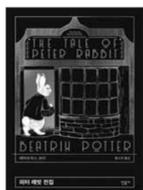
100년 넘게 사랑받는 '피터 래빗' 한 권으로 만난다



피터 래빗 전집

베아트릭스 포터 지음·황소윤 옮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토끼 중 하나인 아마 '피터 래빗'일 거다. 1902년, 베아트릭스 포터(1866~1943)의 그림동화 '피터 래빗' 시리즈를 통해 세상에 나온 그 토끼는 문학 캐릭터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주인공이다.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1억 5000만부가



팔리고 지금도 1년 마다 200만권, 1분마다 4권씩 판매되는 초베스트셀러 '피터 래빗' 시리즈는 책 뿐 아니라 수많은 상품에도 등장하며 인기를 모

으고 있다. '피터 래빗' 시리즈 27권을 한권으로 묶은 '피터 래빗 전집'이 나왔다. 책은 첫 작품인 '피터 래빗 이야기'부터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 중 하나로 꼽은 '글로스터의 재봉사 이야기' 등이 담겼다.

동물을 사랑하고 문학을 즐겼던 그녀는 벤저민과 피터라는 이름의 토끼를 키

웠다. 피터를 데리고 여행하던 중 가정교사의 어린 아들 노엘이 아프다는 말을 듣고 그 소년을 위로하기 위해 지은 동화가 바로 '피터 래빗' 이야기다.

그녀가 창조해낸 피터는 엄마의 경고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장난꾸러기로 사건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을 감싸고 위로를 건넨다. 또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고난을 만나기도 하지만 유머와 기지를 발휘해 위기를 모면하고 용기를 배워나간다.

베아트릭스의 삶 자체는 한 편의 소설 같다. 실제로 그녀의 일대기는 르네 켈위거가 주연을 맡은 영화 '미스 포터'로 제작되기도 했다. 영국 런던의 작은 마을에

서 방직 공장을 운영하는 상류층 가정의 외동딸로 태어난 베아트릭스는 왕립식물원에서 버섯을 연구하고 논문을 쓰며 실력을 인정받았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식물학자가 되는 걸 포기해야 했다.

'피터 래빗'을 출간하는 과정 중 자신의 작품 세계를 이해해 주는 편집자와 사랑에 빠진 그녀는 신분제 사회에서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연을 맺지만 남편이 급성백혈병으로 사망하고 만다.

이후 시골마을 레이크디스트리트로 들어가 농부가 되고, 무분별한 개발에 반대하는 환경운동가로 변신한 그녀는 인세 수입으로 농장을 사들이고 외로운 투쟁을 도왔던 변호사 윌리엄 힐리스와 결혼한다. 특히 그녀가 500만 평 땅을 기증한 '내셔널트러스트'는 이후 세계적 기구로 성장, 환경운동의 보루가 된다.

<민음사·2만2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금강버티컬 버티컬, 커튼, 블라인드, 홀딩도어, 콤팩트스크린, 전동롤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롤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 ☎062)514-6118, 010-5627-6119	제주주택지 전문점 꽃담 동구 밤실로 48-1 (법원 뒤편) 제주주택지 삼겹살 제주 오겹살 (영업시간 오후3시~) ☎062)233-9992	초대 화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공동 54-2) 동양화·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010-2681-3113	메타루이펜션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377-1번지 (담양프로방스영) 편백과 황토로 지은 자연건강 속속 가족당 검침, 예약받습니다. ☎061)383-2698, 010-3603-2698	셋강다슬기 서구 풍곡로 12번길 11(풍암고 정문앞) 다슬기수제비·탕, 다슬기토장탕, 다슬기갈·오리백숙, 다슬기 두부전골 단체순례환영 대표 김병환 ☎062)233-3636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할. ☎062)224-7687, 010-2611-7687
교원 빨간펜 남광주센터 최고의 교육전문가로 성장할수 있는 선생님을 모십니다. 통합독서지도사 kbs미디어 온라인 평생교육원 자격증 취득가능 ☎010-3613-3145	청학철학원 북구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작명, 사주, 운세, 궁합, 택일, 시험, 승진, 사업, 재물, 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010-9866-2332	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하안나라 운동화세탁 북구 우산동 614-10(구.북광주등기소 옆) 운동화·가방·이불 "2월래부터 수거배달" ☎062)269-4450, 010-4607-5773	고흥나루터 동구 지산동 705-9 (법원뒷길) 하모(참장어), 사브사브 전문점 바다장어구이, 장어탕 대표 모복자 ☎062)222-3092	내담대구탕·찜 북구 문흥동 954-8번지 대구탕, 해물갈비찜, 야구찜, 전골 단체모임 환영 대표 한혜숙 ☎062)471-5050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 권리분석 대표 전병양 ☎062)263-2223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서울표구점 북구 중흥동269-14 (중흥3동주민센터 입구 맞은편) 병풍, 액자, 족자, 표구 일체 ☎010-3633-2790	무크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258호 세련된 디자인의 신상품 대량 입고 10%~40% 할인 (일부품목 제외) ☎062)370-9258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에덴신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4번지(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한솔도시락 서영대점 북구 운암동 885-35번지 모든 도시락 포장가능 단체도시락 주문 받습니다. 대표 김용경 ☎062)524-6078, 010-3152-0739		